“퇴근 후에는 만화 그리고 주말에는 불화 그려요”

인터뷰 불화뱀 ‘사바세계 불화공방’ 작가

현실 벽에 회사원+‘N잡러’ 활동
어머니 따라간 사찰서 진행 중인 단청 작업 현장보고 불화에 관심
친숙하게 불화 알리려 웹툰 선택
밈 활용 젊고 힙한 표현 돋보여
블로그 등 연재…전업 작가 목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작가. 불화를 그리고 이를 웹툰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N잡러(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가 있다. 본업은 미술과 무관한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와 주말엔 붓을 잡고 대중과 소통하는 ‘불화뱀’이 그 주인공이다. 신원 공개는 원치 않아 필명으로 이름을 대체한다. 7일간 폭풍 속에서 똬리를 틀어 부처님을 지켜준 용왕(코브라) 무찰린다 설화를 좋아해 필명도 ‘불화+뱀’을 합친 ‘불화뱀’이라 지었다.

그는 원래 불화나 단청 작업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2016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다행히 워라밸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새벽에는 운동을 하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하며, 저녁과 주말에는 웹툰과 불화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웹툰은 대체로 1주에서 3주 주기로 업로드된다. 내용으로는 ‘달마도’ ‘수월관음도’ 등 그간 자신이 그렸던 불화의 완성 과정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법난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외전으로 ‘10·27 법난’ 편도 제작됐다. 그의 웹툰에는 불화라는 전통적 소재를 다루지만, 인터넷 용어나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한 젊고 힙한 표현들이 돋보인다. 특히 대중성 있는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장면도 종종 등장한다. 직장과 창작을 병행하다 보니 일정한 주기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불화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집중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직장이 워라밸이 좋긴 하지만, 가끔 변수가 생겨 퇴근이 늦어지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불화뱀 오너캐 이미지.

그가 불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 깊은 어머니를 따라 사찰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가 대웅전에서 향을 올리고 있을 때, 공양물로 올려진 과일을 몰래 집어 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때 스님은 꾸짖기는 커녕 환하게 웃었고 오히려 과일과 떡을 더 챙겨줬다. 그렇게 불교는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단청 작업 현장을 본 게 전환점이 됐다.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제게 단청을 그리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것을 조립해 사찰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직접 문양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 경험은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는 대학에서 불화를 전공한 후 본격적인 불화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전업은 포기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였다. 불화는 신앙과 예술이 결합된 영역이라, 오로지 불심만으로 작업을 지속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값싼 수입 불화의 유입도 불화 작가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직장생활을 선택했지만, 불화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에 비해 불화를 다룬 미디어가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던 그는 새롭고 친숙한 방식으로 불화를 알리고 싶었다.

“불화를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중들은 불화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그는 불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선보였다. 자신이 단청 현장을 보고 불교미술에 첫발을 들였듯, 웹툰이 누군가에게는 불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현재 그는 블로그와 네이버 도전만화 등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길 꿈꾼다.

“불화뿐만 아니라 불교미술 전반을 다루고 싶어요. 반가사유상, 성덕대왕신종, 백제금동대향로 같은 소재도 매력적이죠. 단순한 학습만화가 아니라, 전문가도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한때 사찰 공양물로 올려진 과일을 몰래 먹던 어린아이는 이제 붓을 들어 불화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을 걷고 있다. 나아가 빛이 바랜 사찰의 등 1000개를 복원하는 재능 보시도 실천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불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릴 적 손댔던 그 과일이 인연이 된 건지 아니면 업장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불화를 그리면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항상 정성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경구처럼, 작지만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직 필선만으로 빚어낸 부처님을 만나다

갤러리 한옥, 최학 작가 초대전 ‘초발심–初發心’

3월 4일까지…15점 전시
전통 선묘불화 기법 사용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최학 작가 초대전 ‘초발심–初發心’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불교회화의 핵심 요소인 필선(筆線)과 선묘(線描)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선묘불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전통 불교회화 1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선묘불화는 전통 불교회화 기법 중 하나로, 필선만으로 불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주로 진한 갈색·흑색·적색 배경 위에 금색 선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최학 작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이 기법을 통해 불교회화의 근본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대중에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조선시대 불교회화 초본(밑그림)을 선묘불화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주목할 만하다. ‘42수 관세음보살도’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전해지는 ‘42수 관세음보살 초본’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해수관세음보살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세음보살 밑그림’을 선묘불화로 재해석 해냈다.


해수관세음보살도. 97×98, 2024년 작.

‘아미타여래강림도’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 불교 도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선묘불화다.

최학 작가는 전통 불교미술이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예술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는 불교회와의 근본 요소인 ‘선(線)’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전통불화 기법의 대중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자리”라며 “고전을 현대에 재해석 함으로써, 불교미술이 단순히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 있는 예술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학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를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제32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김천 직지사, 서울 국제선센터, 삼각산 도선사, 의왕 청계사 등 주요 사찰에 불화를 봉안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서울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강사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스님 독립운동 이야기 뮤지컬로

비구니회 주최 · 승가연구소 주관
2월 28일~3월 2일까지 6회 공연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다큐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최하고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 주관하는 다큐 뮤지컬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을 맡아 비구니스님들의 숨겨진 독립운동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3일 동안 오후 3시와 7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감수에는 본각·광용·수경·심원·혜달·부헌, 대원 스님과 전영숙 박사가 참여했다.

‘비·스·독’에서는 독립을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한 비구니스님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옥수동 미타사의 비구니스님 40인을 비롯해 △제주불교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 △봉려관 스님 상좌로 드러내지 않고 은사를 도운 성해 스님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인사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상근 스님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보각 스님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한 옥봉 스님의 활동상이 담겼다. 010-6247-4608

김내영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